

歷代 漢詩選集의 文學史的 意味

閔 丙 秀*

I. 序 言

漢文學史는 文章의 역사다. 口語로 된 小說의 역사가 아니라 文言으로 된 詩文의 역사이며, 사실상 그 主宗이 되어 온 것은 詩다. 그러나 우리 文學史의 현실은 이러한 史實이 事實로 통용되지 않았다. 손 쉽게 接近할 수 있는 隨筆이나 小說과 같은 이른바 軟文學에 대한 연구는 시대의 風尙으로 각광을 받아 왔지만, 정작 漢詩에 대한 관심은 作品의 所在 파악이나 기초 자료의 조사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漢詩의 전통이 이미 前時代의 것이 되어 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4만여종을 헤아리는 詩文集을 蒐集 網羅하여, 여기에서 우리 文學史의 서술에 직접 제공될 수 있는 漢詩 資料를 選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성취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만큼 安逸을 누릴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漢詩를 生産한 당시의 詩人·批評家들이 직접 편찬에 참여한 歷代의 重要 私撰 詩選集을 調査·檢討하여 이것들이 우리 文學史의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資料史의 의미를 溯究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이것들이 成立된 過程을 살피고, 둘째 그 選拔의 기준이 된 編者의 選觀을 추적하여 이들 詩選集이 지니는 時代史的 意義를 확인하는 차례를 밟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成

* 人文大 副教授.

果는, 文學史를 記述하는 文學史家들은 모름지기 文學史의 각 시기에 참여한 文學事象들의 당시에 지니는 資料史的 意味를 먼저 읽어야 한다는 本稿의 기대를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詩文의 選拔 冊子를 편찬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確證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高麗末 金台鉉의 東國文鑑이 그 최초의 것이 아닌가 한다.¹⁾ 그러나 이것은 失傳되어 그 內容은 알 수 없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崔瀼의 東人之文이 편찬되었지만 이 또한 完帙本은 傳하지 않으며, 이것들은 모두 詩文을 함께 選拔한 文選集이다.²⁾

詩選集으로서의 趙云乞와 崔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三韓詩龜鑑이 현재까지 流傳하고 있는 것으로는 최초의 것이 되고 있다.³⁾ 이 밖에 忠肅王 6年(1337)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十鈔詩(來往名賢十鈔詩) 3권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唐詩로 채워져 있으며, 우리나라 것으로는 崔致遠·朴仁範·崔承祐·崔匡裕 등 數人의 羅代 詩篇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忠烈王代를 下限으로 하고 있으며 內容 또한 疏略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본격적인 選拔 冊子의 出現을 가능케한 초기의 試圖로서 우리나라 漢詩文學史에 있어 한 時期를 區劃케 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한 成果임에 틀림 없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本格的인 私撰 詩選集 가운데서 그 시대사적 의미를 함께 읽을 수 있는 朝鮮初期의 靑丘風雅와 朝鮮中期의 國朝詩刪, 朝鮮後期の 箕雅, 그리고 中人이라는 特殊 身分層의 詩篇으로 채워진 昭代風謠와 風謠續選·三選 및 漢詩 時

- 1) 東文選序에 「金台鉉作文鑑 失之疎略 崔瀼著東人文 散逸尙多」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選拔冊子로서는 東國文鑑이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 2) 崔瀼 批點·趙云乞 精選으로 된 筆寫本이, 현재까지 傳하고 있는 것으로는 最古의 것이다.
- 3) 高麗史 列傳 金台鉉條에 「翁手集東人詩文 號東國文鑑」이란 기록으로 보아, 東國文鑑은 詩文選集임에 틀림 없다.

代가 사실상 끝장이 난 시기에 이를 決算한 大東詩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것들이 지니는 文學史的 意味를 追求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靑丘風雅와 宋詩學의 克服

靑丘風雅의 기본적인 性格은, 朝鮮 初期 金宗直(1431~1492)에 의하여 편찬된 詩選集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形式的인 意味에서 보면, 조선 초기에 이르러 前時代의 文物制度를 整備하는 作業의 一環으로 東文選과 같은 大官撰事業이 進行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金宗直 개인이 편찬한 私選 詩選集이라는 것이며

둘째,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당시의 騷壇이 이때까지도 宋詩學의 影響圈에 있었지만, 金宗直의 靑丘風雅에 이르러 그 克服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靑丘風雅는 新羅末에서부터 朝鮮 初期에 이르는 126家의 各體詩 503首를 精選하여 7卷 1冊으로 刊行한 詩選集이다. 險僻한 故事를 사용한 곳에는 그 本實을 略疏하였으며 未審하고 難解한 詩句에 대해서는 編者의 비평과 풀이를 붙이고 있다.

現存하는 靑丘風雅로는 國立圖書館所藏 甲辰字本을 비롯하여 數種의 筆寫本이 流傳하고 있으나 甲辰字本은 蒼古하여 印墨이 鮮明치 않은데다가 毀損된 부분이 많으며 餘他의 筆寫本(高大本 등)들도 完全하게 保存된 것을 얻어 보기 어렵다. 靑丘風雅의 刊行 時期는 甲辰字本에 있는 編者의 序文(成化 9年, 成宗 4年)과 崔淑精의 跋文(成宗 6年)에 따라 일단 成宗初로 推定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現存 甲辰字本만 가지고 본다면, 이 책은 成宗 15年 甲辰字의 初鑄 이후에 刊行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甲辰字本은 活字가 磨滅된 것이 많고 간간이 다른 活字도

充用되고 있어 실제 이것이 刊行된 시기는 成宗 15年보다 훨씬 뒤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詩文選集의 편찬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확실한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東文選序의 言及으로 보아 高麗中末葉에 金台鉉이 편집한 東國文鑑이 그 先驅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詩만 따로 抄選한 詩選集의 편찬 작업도 이미 高麗末期에서 비롯하고 하다. 이 靑丘風雅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룩된 初期 成果中の 하나다. 序文의 다음 記錄을 보면

崔峴山趙石礪二翁各有所撰(中略)於是姑就三老所撰而拔其尤者又採忠宣以下至于今日遺藁可徵者合古律詩三百餘篇庚寅歲承乏史國與國華檢館中舊篋得存亭諸公遺集未成立書又錄百餘篇(以下略)

이것이 三老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⁴⁾, 峴山은 崔滄(1287~1340)이며 石礪은 趙云乞(1332~1404)이다. 峴山과 石礪의 選集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指稱하는 것인지 確言할 수는 없으나, 아마 이는 峴山の 編著로 알려진 東人之文(詩文選集)과 龜鑑 중의 어느 하나와 石礪의 三韓詩龜鑑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⁵⁾

그런데 앞에서 본 바로는 「三老各有所撰」이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崔滄의 龜鑑과 趙云乞의 三韓詩龜鑑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現存하는 三韓詩龜鑑에는 崔滄 批點, 趙云乞 精選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選者를 먼저 적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三韓詩龜鑑에서 選者인 趙云乞에 앞서 批點을 加한 崔滄의 이름을 먼저 적고있는 것은 이 책에 있어서 崔滄의 比重이 趙云乞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4) 國立圖書館所藏 甲寅字本은 毀損된 부분 때문에 判讀할 수 없고, 筆寫本으로서 序文이 붙어 있는 것은 아직 얻어 보지 못했다.

5) 앞에서 지적한 崔滄의 編著 中에서 現存하는 것은 東人之文 밖에 없으며 이 밖에 拙藁千百어 日本에 傳하고 있지만 이는 崔滄의 個人 文集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있다. 특히 중요한 사실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崔澐와 趙云佐의 先後 관계다. 崔澐의 卞年에 趙云佐은 겨우 9歲밖에 안되는 어린 나이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石礪의 三韓詩龜鑑에 猊山이 批點을 加한 것이 아니라 猊山이 抄選하여 批點을 한 어떤 詩選集을 石礪이 참고하여 다시 三韓詩龜鑑을 편집하고, 猊山이 批點을 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猊山의 龜鑑이 石礪의 三韓詩龜鑑과 有關하리라는 推測을 가 능케 하는 所以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一聯의 사실에서 보면, 靑丘風雅는 崔澐·趙云佐 등이 편찬한 詩選集과 春亭 卞季良 등의 未完成 舊藁가 기본이 된 選集의 選集이라 할 것이다.

靑丘風雅와 거의 같은 시기에 東文選이 간행되었으며 柳夢窩의 大東詩林이 이 뒤에 나온 듯하나 이것은 함께 論할 수준의 것이 되지 못한다. 東文選은 방대한 官撰書로서, 또 詩文의 總集으로서 이것이 갖는 資料集으로서의 의미는 막중하지만, 그러나 靑丘風雅는 東文粹(文選集)와 더불어 編者의 趣向과 藻鑑에 따라 精選한 私撰書이고 또 이것은 詩選集이라는 점에서 兩者는 좋은 對照를 보인다. 이와 같은 兩書의 性格은 다음과 같은 諸家의 記錄에서도 사실로 확인된다. 成俔은 그의 慵齋叢話(卷 10)에서

成謹甫在時 編東人之文 名曰東人文寶 未成而死 金季醞 踵而成之 名曰東文粹 然季醞專取文之繁華 只取醞藉之文 雖致意於規範 而萎爾無氣 不足觀也 其所撰靑丘風雅 雖詩不如文 詩之稍涉豪放者 棄而不錄 是何膠柱之偏 至如達城所撰東文選 是乃類聚 非選也

라 하여 兩書의 性格과 金宗直의 文學世界까지도 함께 論及하고 있다. 그리고 南龍翼과 洪萬宗은 그 續篇에 대해서도 言及하고 있는데, 차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南龍翼은 箕雅 序文에서

東文選 博而不精 續則所載無多 青丘風雅 精而不博 續則所取不明

이러 하였으며 洪萬宗은 詩話叢林證正에서

徐四佳東文選 卽一類聚 亦非選法 蘇陽谷續東文選 取舍不公 頗因愛憎 金佔畢
續青丘風雅 只取精簡 遺其發越 柳西炯續青丘風雅 與奪不明 未得其要領

이러 하여 兩續集의 性格을 명료하게 指摘하고 있다. 이로 보면 續東文選과 續青丘風雅는 各各 正篇에 이어 그 以後의 作品을 收錄하고 있는 점에서 續篇의 의미가 있을 뿐, 正篇의 성격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續東文選에는 正篇에서 볼 수 있는 全集的인 性格은 이미 喪失되고 있으며, 특히 青丘風雅와 같은 私撰 選集의 경우, 다른 編者에 의하여 그것을 續補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柳西炯(名은 根)의 續青丘風雅는 南龍翼과 洪萬宗이 각각 지적한 바와 같이 「所取不明」, 「未得要領」한 것으로 사실상 青丘風雅를 續補할 만한 水準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續青丘風雅는 編者 未詳인 數種의 筆寫本(3卷 3册, 7卷 1册本 등)이 流傳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柳西炯의 續篇外에도 또 다른 異種이 있는 듯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青丘風雅도 朝鮮後期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異種의 印本이 있는 바, 青丘風雅라는 各號는 이미 普通名詞化한 느낌이다.

東方 理學의 淵源 系譜에서 보면, 佔畢齋 金宗直은 麗末의 圃隱·治隱의 學統을 이어 받은 아버지(江湖 金叔滋)에게서 性理學을 배워 그의 門下에 鄭汝昌·金宏弼과 같은 大儒를 두었으며 金宏弼의 門下에서 다시 金安國 兄弟와 趙光祖가 輩出됨으로써 朝鮮時代 性理學을 열어 준 一時의 儒宗이다. 그러나 그의 文集인 佔畢齋集에는 性理學에 관한 文字는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그의 학문적 傾向이 孝悌忠信을 主眼으로 하는 實際 方面에 置重하였던 것임을 짐작케 하는 數篇의 鄉校記 등이 있을 뿐이다. 退溪가 그를 評하여

金宗直 非學問底人 終身事業 只在詞華上 觀其文集 可知

라 한 것도 바로 이를 두고 이름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文學觀에 있어서도 일단 朝鮮時代 文學理論의 支配 原理처럼 君臨해 온 效用的인 文學論을 披瀝하였다.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乃文章之根柢也 譬之草木焉 安有無根柢 而柯葉之條國 華實之體秀者乎 詩書六藝 皆經術也 詩書文藝之文 即其文章也…今之所謂文章者 不過雕篆組織之巧耳

그러나 이와 같이 經術과 文章을 一道視하는 그의 載道的인 文學觀은 겉으로 표방한 형식적인 口號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이 그의 文學 修業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徐居正이나 成覲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 徐居正과 成覲도 모두 效用的인 載道觀을 先唱하였지만, 그들이 著作한 東人詩話나 慵齋叢話에서 그들은 각각 曹丕의 文氣論以後 個性主義 쪽으로 기울어진 表現論을 開陳함으로써 스스로 效用論을 克服하고 있다. 때문에 傑出した 文章家의 輩出을 볼 수 없었던 朝鮮 初期 詞壇에 徐居正과 成覲은 모두 文章으로 鳴世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騷壇이 아직까지도 宋 詩學의 影響圈에 있었지만, 金宗直은 그 風尙에서 멀리 떨어져 嚴重 放遠한 詩世界를 構築하였다. 成覲이 金宗直의 青丘風雄를 가리켜 「稍涉豪放者 棄而不錄」이라 한 것도 그 選觀의 偏向性을 指摘한 適評이라 할 수 있거니와 이는 곧 그의 詩가 宋詩學의 豪放한 氣格을 사실상 克服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後代人の 批評 가운데서도 車天輅나 申欽이 仙槎寺詩의

鶴天羅代蓋 龍藏佛天陞

句를 들어 그의 放達 또는 放遠함을 稱道한 것이라든가, 許筠이 「神勒寺」詩(泊宿報恩寺下贈主持牛節)의

上方鍾動虯龍舞 萬竅風生鐵鳳翔

을 洪亮 嚴重하다고 하여 宇宙에 기둥을 받치는 句라 하고 또

桃花浪高幾尺許 銀石沒頂不知處
兩兩鸕鷀失舊磯 脚魚却入菰蒲去

이 「寶泉灘卽事」詩를 가장 높은 것이라 評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 嚴重放達한 金宗直의 詩世界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그의 詩世界가 그 選詩 過程에 직접적으로 干涉하여 이룩된 것이 靑丘風雅다. 때문에 그는 雄渾·豪放으로 一世에 詩名을 드날린 李奎報, 李穡, 鄭夢周와 같은 詩人의 詩編 가운데서도 豪放한 것으로 定評되어 온 作品들은 選拔하지 않았으며 또한 婉麗·新麗한 것도 考慮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그 具體的인 事例를 李奎報와 鄭夢周의 作品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李奎報의 경우에 있어서는 崔滋가 그의 補閑集에서

文順公 少年 시절의 走筆은 모두 기운이 살아 있는 筆蹟이었으므로 同輩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가 '文長老의 贈詩를 보고'를 次韻하기를

잠 잘 오는 시간(工夫)은 길숙한 거리에 비 올 적인데
밤의 차가운 초식은 한 병의 얼음이네

또

두어 편 쇠귀는 한가한 가운데 서두르고
한 판의 바둑 소리는 조용한 속에 울리네

또

한 골짜기의 지락 도울은 중들의 부귀요
두 봉우리 소나무의 달은 학의 생애이네(그 절이 두 봉우리를 마주보고 있음)
아침 저녁 새 소리는 문 밖 나무에서 들려 오고
古수의 사람 그림자는 길 옆 못에 비추이네

또

섬들 위에 대나무는 그늘에 지쳐서 숲이 자라지 못하는데
물에 편 매화는 비에 흠뻑 젖어서 열매 이제 살찌네

文順公少年時走筆 皆氣生之句 膾炙衆口 如次韻文長老見贈云

匪美工夫深巷雨 夜寒消息一瓶水

又

數篇詩句閑中迫 一局碁聲靜裡喧

又

一洞烟霞僧富貴 兩峰松月鶴生涯(其寺對兩峰)

朝暮鳥聲門外樹 古今人影路傍潭

又

階竹困陰孫未長 庭梅飽雨子初肥

이와같이 崔滋는 그의 補閑集에서 李奎報의 豪放한 氣상을 稱道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初期 作品은 靑丘風雅에 전혀 選入되지 않고 있으며, 婉麗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온 「夏日」도 靑丘風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가벼운 적삼에 내자리 깔고 바람 버리에 누웠다가
우는 피꼬리 두세 소리에 꿈을 깨었네
츄츄한 잎사귀에 가리운 꽃들은 봄이 지나도 남아 있고
엷은 구름에서 햇빛이 새어나와
비 속에서도 밝아라

輕衫小簾臥風樓 夢斷啼鶯三兩聲

密葉翳花春後在 薄雲漏日雨中明

이 詩는 읽는 이로 하여금 산뜻한 기분마저 느끼게 하는 작품이며, 그의 七言 絕句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어 왔기 때문에 東文 選을 비롯한 歷代 詩選集에선 빼지 않고 收錄하고 있지만 靑丘風雅에서는 이를 外面하고 있다.

다만, 橫放한 作品으로 알려져 있는 李奎報의 詩篇 中에서 靑丘風雅에 選入되고 있는 것으로는 七言 古詩 「七夕雨」를 들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 詩도 그 橫放한 氣象에 앞서 全篇에 넘치는 富麗한 餘裕가 그의 眼光을 洽足하게 하였는지 모른다.

이러한 사정은 鄭夢周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七言 律詩 가운데서도 「定州重九韓相命賦」나 「重九題明遠樓」, 「蓬萊

驛示韓書狀尙質』과 같은 작품은 모두 跌宕 豪放한 작품으로 後世의 稱頌을 받은 것이지만, 靑丘風雅에서는 한 편도 뽑아 주지 않았다. 北關에서 지은 「定州重九韓相命賦」를 보면 다음과 같다.

定州라 重九날 높은 곳에 오르니
 국화꽃 예와 같이 환하게 비취 오네
 개펄은 남쪽으로 宜德嶺과 이어 있고
 봉우리는 북으로 女眞城에 기대었네
 백년의 전쟁에는 흥하고 망하는 일
 만렷길 나그네는 강개로운 회포일세
 술자리 끝나고 元戎大將 부축 받아 말에 오르니
 앞은 산에 비친 석양 붉은 것만 비추네

定州重九登高處 依薔黃花照眼明
 浦溆南連宜德嶺 峰巒北倚女眞城
 百年戰國興亡事 萬里征夫慷慨情
 酒罷元戎扶上馬 淺山斜日照紅旌

이 作品은 豪放한 氣象이 一目에 躍如하며 音調 또한 跌宕하여 盛唐의 風이 있다.⁶⁾ 後世에까지 絶唱으로 불리어 온 것 중에는 七絶「江南曲」과 五律「旅寓」가 選入되고 있지만 이 작품은 豪快와 風流를 함께 읽을 수 있는 名作이기 때문이리라.

이상을 종합해 보면, 그의 詩가 전혀 蘇·黃에서 나왔다는 見解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며, 오히려 沈澁 嚴重한 杜詩에 대한 관심이 그의 詩世界에 같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後期의 詩選集에서 唐詩가 標準이 된 사실도 始源적으로는 金宗直에게까지 溯及되어야 한다는 提言도 결코 無用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6) 惺叟詩話 參照

III. 國朝詩刪과 格調論

國朝詩刪의 기본 성격은 許筠이 鈔選한 詩選集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許筠은 자신이 選拔한 작품에 스스로 批와 評을 함께 붙이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 批評史上 그 類例가 없는 實際批評의 先驅가 되고 있다. 時代史的으로는, 靑丘風雅·東文選 이후 穆陵盛세에 이르는 150년간은 朝鮮時代의 騷壇이 전에 없이 多樣한 展開를 보이면서 豐饒를 누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許筠의 높은 藻鑑으로 이것들이 再照明을 받게 된 것은, 그 시대에 그 비평이 함께 어울려 이룩한 無比의 成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許筠이 唐詩를 표준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주로 取擇한 것은 「聲律이 맑고 色澤이 현란 것」이고 보면⁷⁾, 國朝詩刪은 詩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本格派 批評家에 의하여 기록된 보기 드문 성과라 할 것이다. 文言으로 中國詩를 배운 우리나라 詩人·批評家들이 辭語나 聲律과 같은 形式的인 技巧에 疎遠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나, 許筠은 이 國朝詩刪을 통하여 이러한 脆弱點을 스스로 克服하여, 우리나라 批評史上 가장 높은 詩學의 수준을 과시하고 있다.

國朝詩刪은 朝鮮朝 鄭道傳에서부터 權輿에 이르는 35家の 各體詩 888首를 選輯하고 卷末에 許氏 一家의 許門世襲를 附載하고 있다. 그러나 이 詩選集은 오랫동안 開刊되지 못하다가 肅宗代에 이르러 朴泰淳에 의하여 다시 編輯 刊行되었다. 序文에는 肅宗21年(1695)의 刊記가 있으나 洪萬宗의 詩話叢林證正에 「朴汝厚泰淳 尹廣州也 刊行許筠所纂國朝詩刪」이라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廣州府官으로 재직하던 肅宗 23年(1697)이 刊行 年代가 될 것이다.

그의 序文에 따르면, 許筠이 이미 被誅되자 이 選集과 그의 著述들은

7) 國朝詩刪 序文 參照

거의 湮亡되기에 이르렀고 或 好事家 가운데 收錄하여 둔 자가 있어도 밖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아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은 廢할지언정 그 所集은 廢할 수 없음을 切感하고, 또 많이 읽은 우리나라 詩選集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이 選集을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널리 諸本을 求하고 證定을 加하여 數卷으로 撰集 간행한다고 述懷하고 있다. 朴泰淳은 이로 因하여 그 뒤 全羅道 觀察使 在職時(1699)에 전라도 儒生들로부터 규탄을 받아 長湍府使로 左遷되기까지 하였다 한다.

이 책은 9卷 4冊의 木板本이다. 이 밖에도 수종의 異本(筆寫本 5卷 1冊, 印本 2卷 1冊 등)이 流傳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대개 集中의 古詩와 雜體詩를 收載하지 않았거나 卷末의 許門世業가 빠져 있는 것들이다.

國朝詩刪 이전의 詩選集으로는 靑丘風雅와 東文選(詩文合輯)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朝鮮初期의 것들이며, 뒤에 다시 靑丘風雅와 東文選은 각각 續編이 나오기까지 하였으나 續靑丘風雅는 그 所據가 不明하며 續東文選은 正編이 간행된 지 不過 40年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東文選 이후 우리나라 詩業이 크게 떨친 朝鮮中期의 詩選集으로서 國朝詩刪의 資料史的 의미는 記錄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 選集에는 今體는 물론이요 古調 長篇과 雜體에 이르기까지 佳句 絕調다다 編者의 批와 評을 붙이고 있어 이는 한갓 選詩의 작업에 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의 惺叟詩話가 朝鮮中期까지의 漢詩略史라 한다면, 이 詩刪은 그 구체적인 作品評이므로 이것들이 우리나라 詩史 研究에 寄與한 功業은 莫重 이상으로 값진 것이다.

한편 이 책에는 作者 또는 詩作과 有關한 題詠이나 故實을, 歷代의 詩話·漫錄에서 찾아 陰刻으로 補注를 붙이고 있다. 이는 아마 稿本을 再編輯하는 과정에서 朴泰淳 자신이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序文에도,

於是 廣求諸本 頗加證定 又取諸家詩話 以類補綴繕寫爲幾卷

이라 言及한 것으로 보아 朴泰淳이 한 일임에 틀림 없는 듯하다. 補注 가운데는 梁慶遇의 靈湖詩話, 李暉光의 芝峰類說, 車天輅의 五山說林 등도 보이는 바, 編者인 許筠이 同時代人的 著述까지 두루 涉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특히 梁慶遇·李暉光·柳夢寅 등은 許筠보다도 뒤에 죽었다. 그리고 前記 詩話書 가운데서 刊行 年代가 알려져 있는 芝峰類說은 許筠이 죽기 4년전에 刊行되었으나, 이때는 許筠의 泰仁 隱居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가 得勢한 바쁜 생활 속에 著述을 할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許筠은 洪吉童傳과, 隱人의 傳記인 張山人傳·南宮先生傳·蔣生傳 등 敘事體 文章을 통하여 그의 散文 能力을 誇示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文學으로 英采를 發한 것은 詩와 批評이다. 朴淳에게 唐을 배운 崔慶昌, 白光勳과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李達 등이 등장함에 따라 朝鮮 中期 騷壇의 主流가 學唐으로 傾倒하게 되었거니와 李達로부터 唐을 배워 詩人으로 成長하게 된 許筠은 「맑고 고운」 詩로서 正평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그의 詩世界는 批評에 있어서도 卓越한 才能을 발휘하였다. 國朝詩刪·惺叟詩話·鶴山樵談 등의 著作을 통하여 格調 높은 唐詩의 성격과 學唐의 詩史的 의미를 明快하게 開陳함으로써 朝鮮中期 詩學의 높은 境地를 構築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國朝詩刪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에서 資料史的 意味는 기록되어 마땅하다. 첫째, 唐詩에 近接하고 있는 朝鮮前期의 詩作에 대하여 一句 一聯에 이르기까지 批評을 붙여 近唐의 事實을 證驗하고 있으며, 둘째, 唐詩의 높은 標準尺으로 우리 詩의 聲韻을 點檢하여 詩에 있어서 形式的인 技巧의 重要性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許筠은 國朝詩刪에서 이른바 三唐詩人으로 불리우는 崔慶昌

·白光勳·李達의 詩篇을 中心으로, 朝鮮初期 近唐으로 알려진 李膺·申光漢·金淨·羅湜 등의 各體詩에 대하여 그의 다양한 표현을 빌어 批와 評을 加하고 있다. 그 例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李膺의 七律 次安邊樓題의⁸⁾

鐵關天險似秦中 古塞悲笳落遠空
凍雨斜連千嶂雪 飢鳥驚叫一林風
百年去住身先老 半世悲歡氣挫雄
萬里羈懷愁不語 關河邵遠近山戎

에 대하여 그는 盛唐의 能品으로 評價하고 있으며, 惺叟詩話에서도 盛唐의 風格이 있다고 論及하고 있다. 金淨의 五律 春夜贈奉君朝瑞往松都 因返故林詩에 대해서는⁹⁾

華月未揚光 層城夜蒼蒼
臨觴忽惆悵 幽意故徬徨
故國雲烟斷 舊園林木長
歸隊在明發 江海查難望

특히 「華月未揚光 層城夜蒼蒼」의 起聯을 들어 「眞接孟王高派」라 品評하고 있다. 다른 詩選集에서는 전혀 뽑아 주지도 않은 이 작품에 대하여 이와 같이 深切한 批評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許筠의 唐詩에 대한 관심의 깊이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상에서 海東의 江西詩派로 불려 온 李符의 詩에 대해서도 唐詩風이 깃든 작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七絕 霜月詩에 대하여¹⁰⁾

晚來微雨洗長天 入夜高風捲暝烟
夢覺曉鐘寒徹骨 素娥青女闌嬋妍

8) 國朝詩刪 卷 5

9) 同上 卷 4

10) 同上 卷 2

唐人의 高處에 모자람이 없는 작품으로 稱道하고 있다. 그리고 朝鮮 初期의 宋詩圈에서 사실상 逸脫한 바 있는 金宗直의 작품에 대해서도 差祭宿江上詩(五律)¹¹⁾의 경우에 있어서는

卷輓臨江水 焚香夜寂寥
鶴鳴清露下 月出大魚跳
剖眼古銀漢 齋心禱絳霄
蒿師知我意 早整木蘭橈

특히 承聯의 「鶴鳴清露下 月出大魚跳」를 가리켜, 어찌 唐人의 高處에 모자람이 있겠는가 반문하고 있다. 더우기, 유명한 仙槎寺詩에 대해서는 第5句의 「細雨僧縫衲」을 들어 유독 唐에 逼近하다고 摘示할 정도로 許筠의 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許筠이 批評家로서의 높은 藻鑑을 과시한 것은 聲律에 있다. 그는 詩刪뿐만 아니라 惺叟詩話·鶴山樵談의 到處에서 詩의 音樂性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가 國朝詩刪에 崔孤竹 등 三唐派의 詩作을 수집편이나 뽑아 넣게 된 경위를 惺叟詩話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二家詩 余選入於詩刪者 各數廿篇 音節可入正音 而此外不耐雷同也

그가 이들의 詩를 選拔한 기준이 전혀 音節에 있었음을 사실대로 披露하고 있다. 계속하여 그는

余嘗繫孤竹五言古詩律詩 亡兄古歌行 蘇相五言律 芝川七言律 蘇谷玉峯及亡姉
七言絕句 爲一帙看之 其音節格律 悉同古人 而所恨氣不及焉 嗚呼 孰返其元聲耶

라 하여 역시 選詩에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音節이나 格律과 같은 詩의 소리에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가 國朝詩刪에서 個別 작품에 대한 實際批評을 행함에 있어서도 唐과 非唐은 엄격히 구별되고 있으며 특히

11) 同上 卷 4

近唐의 詩篇에 限하여 聲韻을 論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 구체적인 例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李胄의 通州詩(五律)에 대해서는¹²⁾

通州天下勝 樓觀出雲霄
市積金陵貨 江通揚子潮
寒烟秋落渚 獨鷓暮歸遙
鞍馬身千里 登臨故國遙

이를 가리켜 老杜의 清韻이라 칭송하고 있으며, 惺叟詩話에서는 王孟에 逼近한 것으로 論評하고 있다. 申光漢의 晚望詩(五律)의¹³⁾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峽盡滄江遠 沙平水驛開
炊烟花外沒 夕鳥日邊回
故國無消息 孤舟有酒盃
前山侵道峻 何處望蓬萊

전편이 清新 婉切하여 바로 韋孟의 高韻이라 격찬하고 있다. 沈着한 詩로서 널리 알려진 金麟厚의 대표작 登吹臺詩(五律)에서도¹⁴⁾ 그는

梁王歌舞地 此日客登臨
慷慨凌雲纒 淒涼弔古心
長風生遠野 白日隱遙岑
當代繁華事 茫茫何處尋

특히 首聯의 「梁王歌舞地 此日客登臨」을 가리켜 盛唐의 高韻이라 稱道하고 있다. 이와 같은 許筠의 聲韻에 대한 깊은 造詣는 惺叟詩話에서 高麗時代의 詩作을 論하는 곳에서도 異彩를 發하고 있다. 豪放한 氣象으로 定評되어 있는 李穡과 鄭夢周의 詩에 대해서도 각각 그 音樂性에 着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李穡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浮碧樓

12) 同上

13) 同上

14) 同上

詩에 대하여 그는

不雕飾不探索 偶然而合於宮商 詠之神逸

이라 하여 스스로 律調에도 뛰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鄭夢周가 北關에서 지은 定州重九韓相命賦에 대해서도

音節跌宕 有盛唐風格

이라 하여 그 盛唐의 風格을 특히 音節로써 照鑑하고 있다. 그리고 江南女詩(七絶)에 있어서도

風流豪宕 輝映千古 而詩亦酷似樂府

라 하여 이를 樂府에 비견하고 있다. 이러한 許筠의 높은 眼目 때문에 國朝詩刪은 후대의 詩人 墨客들에게 널리 읽혀진 바 되었으며 특히 詩話·批評書에서 가장 많이 引用되는 책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記錄들이 있다. 金得臣은 그의 終南叢志에서

許筠所撰國朝詩刪中 選入此詩而評之曰 此老此聯當壓此卷 許筠以華鑑名世 則宜有深解芝峰之有此貶論者 豈未嘗細究而然耶

라 하여 許筠의 鑑識眼에 깊은 信賴를 보이고 있으며, 洪萬宗은 그의 詩話叢林證正에서

惟許筠國朝詩刪 澤堂諸公皆稱善棟 詩刪之盛於世 蓋以此也

라 하여 餘他の 選集들은 모두 그 弱點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직 國朝詩刪만은 澤堂을 비롯한 諸公들이 모두 잘 뽑았다고 칭찬하였고 이 詩刪이 널리 세상에서 읽혀진 所以도 이 때문이라 하였다.

卷末에 附載한 許門世藁는 陽川許氏 一門中에서도 頤軒 許琛을 비롯하여 그의 아버지 草堂(暉)과 兄 荷谷(筠) 兄姊 蘭雪軒 등 6人的 詩를

詩體에 따라 編次 수록한 것이다. 여기서 許筠은 직접 自選하는 方式을 취하지 않고 그가 가장 아끼던 詩友 權輶로 하여금 批選케 했다.

그러나 蘭雪軒集의 詩文은 대부분이 許筠의 것이라고도 하며, 또는 許筠이 元·明代의 佳句中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을 골라 蘭雪軒의 作品이라 假稱하여 蘭雪軒集에 添入 傳世케 하였다는 世人의 譏評도 있는 바(李暉光·南龍翼·金昌協 등), 이는 弄筆의 餘技를 좋아하던 許筠의 一面을 端的으로 드러내보인 것인지도 모른다.

IV. 箕雅와 折衷論

許筠의 國朝詩刪이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詩選集이라면, 南龍翼(1628~1692)이 撰集한 箕雅는 國朝詩刪 이후 조선 후기 搢紳間에 가장 널리 읽혀진 詩選集이다. 壬丙 兩亂의 失意 이후 깊은 靜寂 속으로 빠져 들어간 騷壇이 다시 活氣를 되찾은 肅宗年間に 이 책이 간행된 것은 時代史的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肅宗 英朝年間に 加熱된 黨論으로 말미암아 士林이 다시 빛을 잃고 詩業이 沈滯해지기 시작한 조선 후기 詞壇의 현실에서 볼 때 箕雅의 出現은 조선 후기 騷壇의 中間報告 이상으로 詩史的인 의미는 값진 것이다.

그리고 撰者인 南龍翼은 詩로써 세상에 이름을 올린 詩人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가 著作한 壺谷詩話에서 우리나라 批評史上 가장 다양한 詩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箕雅의 資料史的 意味 역시 스스로 막중한 것이 된다.

그러나 箕雅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編輯 精神이다. 역대의 중요 詩選集을 두루 섭렵하여 넘치는 것은 깎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어 相互補完 折衷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箕雅는 형식상으로는 私撰 詩選集이지만, 刊行 當時 南龍翼 자신이 文衡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採詩 작업 자체를 文衡의 임무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箕雅는 단순히 개인에 의하여 이룩된 私撰 選拔 冊子 이성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箕雅는 新羅末의 崔致遠 崔承祐에서 부터 朝鮮朝 肅宗代의 金錫胃·申岐 등에 이르기까지 497家の 各體詩를 選輯하여 肅宗 14年(1688)에 芸閣의 筆書體字로 印行한 14卷 7冊이다. 그리고 이 芸閣筆書體字는 箕雅를 印刷할 때 처음 사용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의 序文 및 壺谷集¹⁵⁾의 「戊子除夕謾記」에 「芸閣鑄字始用印布」라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活字가 箕雅를 印行할 때 처음 사용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序文에 따르면, 이 책을 編成함에 있어 그 기본 자료가 된 것은 東文選·靑丘風雅·國朝詩刪 등이다. 그러나 東文選은 博而不精하고 續篇은 所載가 無多하며, 靑丘風雅는 精而不博하고 그 續篇은 所取가 不明하며 國朝詩刪은 자못 詳核한 것이기는 하나 朝鮮初期에서부터 宣祖代에 限한 것이므로 首尾가 完備되지 않은 흠이 있어, 三選中에서 繁多한 것은 畧하고 疏略한 것은 보태었으며 國朝詩刪 이후의 것은 名家의 詩文集中에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取했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편자 자신이 직접 取材한 것은 仁祖代에서 肅宗代에 이르는 70餘年間의 것이다. 編制는 唐詩品彙의 例에 따라 羽士·衲子·閨秀·雜類·無名氏의 작품은 各詩體의 末尾에 附載하였으며 不姓氏 3人을 卷尾에 附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謀逆의 嫌疑로 被誅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만 쓰고 姓은 붙이지 않은 것이다. 許筠도 물론 여기에 든다.

이 책의 全篇을 보면, 靑丘風雅나 東文選에 비해 古詩와 排律이 各體의 律詩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雜體詩는 전혀 考慮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漢詩가 中國에 비하여 古調·長篇에서 뒤떨어지고 있으며 絶句가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古詩에 있어서 그 所尙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은 端的으로 말해 주

15) 南龍翼, 壺谷集 卷 25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詩의 內質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南龍翼 자신이 저작한 壺谷詩話에서도 이는 사실로 확인된다. 그는 역대의 詩家를 論함에 있어,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色韻·聲律·氣力을 詩品の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調格·情境·體制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곧 그 風尙을 달리하는 兩代詩의 特徵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宋詩學의 影響圈에 있었던 우리나라 漢詩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學唐으로 傾倒하게 된 詩史의 의미를 사실대로 看取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면 이 책에서 南龍翼은 撰者의 취향이나 偏執에 사로잡히기 쉬운 選詩者이기보다는 시대의 風尙과 詩家의 所長을 사실 그대로 인정한 編輯者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選文集인 東文選을 편찬한 徐居正에 의하여 東人詩話가 製作되었으며, 조선중기 詩學의 높은 수준을 誇示한 許筠이 또한 惺叟詩話와 國朝詩刪의 撰者라는 사실에서 보면,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詩選集을 편찬한 南龍翼의 詩學 또한 높은 評價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가 著作한 壺谷詩話¹⁶⁾는 우리나라 역대의 詩家 批評에 있어 가장 다양한 詩品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의 文集 15卷은 대부분이 詩로써 채워져 있으며 특히 古詩와 排律에 있어서는 數十 數百韻을 一筆에 驅使하는 長篇의 能力을 誇示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箕雅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排律이나 古體는 世傳하는 詩選集 중에서 選拔하고 있을 뿐, 增選하는 노력은 거의 보여 주지 않았다. 箕雅의 撰輯 의도가 처음부터 編輯者로서의 임무 수행에 主眼이 있었음을 확인케 한다.

南龍翼은 少年 登第하여 40年 동안 官路에 있으면서 文衡의 榮官에 까지 올랐지만, 그러나 公餘에는 항상 詩酒를 즐겼을 뿐, 要路와의 折衝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大提學의 現職에 있으면서 箕雅를

16) 壺谷漫筆 卷3에 수록된 詩話 부분을 따로 뽑아 이를 壺谷詩話라 부른 것이다.

편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그의 체질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V. 風謠와 委巷詩人の 意志

여기서 風謠라고 한 것은 昭代風謠와 風謠續選·風謠三選 등 委巷詩人의 詩集을 지칭하는 것이다. 詩作의 수준에 있어서는 士大夫의 그것에 비길 것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身後에까지 傳하려는 中人·賤隸들의 피맺힌 所望이 凝結되어 있는 特殊階層의 詩集이다. 때문에 그 編成의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의 共同參與로 많은 우여 곡절을 겪어야 했으며 士大夫의 도움도 큰 몫을 하고 있다. 委巷詩人이란 대체로 醫譯中人·胥吏등과 같이 中間 階層의 身分에 속하는 詩人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士大夫의 列에는 參與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平民보다는 優位에 있는 閭井의 詩人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昭代風謠에서처럼 일반 商人이나 賤隸 出身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委巷人의 詩集을 간행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顯宗 9年(1668)에 中人 出身 6人의 詩篇을 모은 六家雜詠이 나왔으며, 여기에 실린 詩人들은 崔奇男을 비롯하여 南應琛·鄭禮男·金孝一·崔大立·鄭栢壽 등 모두 一時의 名家들이다. 그 뒤 肅宗 33年(1712)에 滄浪 洪世泰가 農巖 金昌協의 격려와 협조로 10년 동안 委巷에서 詩篇을 수집하여 海東遺珠 1冊을 刊行한 것이 본격적인 委巷詩人의 詩集으로서의 최초의 것이다.

昭代風謠는 바로 이 海東遺珠를 토대로 하여 增選 續補한 것이며, 이에 이르러 조선초기에서부터 肅宗代까지의 委巷詩人들의 詩篇을 정리하는 작업이 일단 마무리 된 셈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역대의 中庶·賤隸 중에서도 文學史에 이름을 전하고 있는 名家의 詩作이 많아 詩史的인 무계에 있어서는 輕忽히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身後에까지 전하려는 委巷詩人들의 노력은 어

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이 뒤에도 周甲마다 續集을 간행하는 意志를 보여 正祖21年 丁巳(1797)에 風謠續選(7卷 3冊)이 간행되었으며 그 二周甲이 되는 哲宗 8年 丁巳(1857)에는 風謠三選이 나왔다.

昭代風謠는 162家의 詩篇을 詩體에 따라 選輯하여 英祖 13年 丁巳(1737)에 간행하였으며, 原集 9卷과 拾遺·別集·別集補遺 등을 합쳐 2冊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뒷날 風謠三選을 편찬할 때(哲宗 8, 1857) 昭代風謠가 散亡될 것을 우려하여 그 이듬해(戊午)에 芸閣字로 다시 印出한 重印本이 널리 流行하고 있다.

編者는 高時彥(1671~1734)으로 알려져 왔으나 蔡彭胤(1669~1731)이라는 說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가 제시된 일은 없다. 吳光運(1689~1745)의 序文과 跋文에 따르면 蔡彭胤이 哀集한 것을 李達峰이 刪正하고 吳光運 자신이 補刪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120년 뒤에 간행된 風謠三選의 跋文에는 高時彥을 編者로 斷定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高時彥의 題辭가 昭代風謠卷首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공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編者로 알려진 이 두 사람은 모두 책이 간행되기 전에 죽었다. 이 사실은 高時彥의 작품이 이미 別集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吳光運의 跋文에 「主其役者又哀後死」라는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이러한 一聯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책은 그 選輯에서부터 刊行에 이르는 동안 오랜 期間이 所要되어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의 共同 參與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正集 9卷 外에 拾遺·別集·別集補遺 등을 追補하여 正集과 함께 간행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端的인 證左가 될 것이며 卷首에 題辭를 붙인 高時彥의 작품이 別集에 수록되고 있는 현상은 이 책의 간행 經緯를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昭代風謠를 選輯한 것은 蔡彭胤이며, 高時彥이 간행에 參劃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吳光運의 힘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다.

이 책에 수록된 詩人들은 中庶人을 비롯하여 商人 賤隸 출신까지도

망라되고 있지만, 그 中心이 되고 있는 것은 醫譯中人和 胥吏이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醫譯中人是 「下大夫一等之人」으로 지칭될 정도로 그 役割을 인정 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서울의 中人層으로서, 그들이 담당하는 業務의 性格上 都市의인 知識人으로 또는 文人으로 成長할 수 있었으며, 때로는 士大夫의 知遇를 입어 이들과 忘年之交를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國制의 禁錮로 窻路의 진출이 制限되어 있던 이들은 兩班 士大夫의 誘掖과 推輓에 힘입지 않고서는 그들의 성취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의 간행에 있어서도 士大夫의 협조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高時彦 자신이 悲壯하게 七言으로 읊고 있다.¹⁷⁾ 그 일부를 보면

與東文選相表裏 一代風雅彬可賞
貴賤分歧是人爲 天假善鳴同一響

이라 하여, 이책의 성격은 東文選과 더불어 表裏의 관계에 있음을 闡明하고 있으며, 人爲의인 身分에는 貴賤의 차이가 있지만 하늘이 준 노래는 같은 소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들 委巷詩人은 文學 樣式에 있어서도 그들 나름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士大夫層의 詩文을 그대로 收容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詩篇의 대부분이 今體詩로 채워져 있는 것도 時代의 風尙을 그대로 追隨한 것이다. 排律과 같은 長篇은 劉希慶·崔奇男·洪世泰 등 名家의 作品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며, 古體에 있어서도 前記 六家雜詠의 6人 詩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作家 意識에 있어서도 現實 問題에 대한 그들의 認識이 대개 懷古的인 感傷으로 흐르고 있어 스스로 그 限界를 드러내고 있다.

風謠續選은 題名 그대로 昭代風謠의 續篇이다. 昭代風謠가 간행된 지 60年만에 松石園의 千壽慶과 張混이 中心이 되어 昭代風謠 이후의 委巷

17) 昭代風謠卷首 題辭

詩人 가운데서 333家の 723首를 選輯하여 그 周甲이 되는 正祖 21年 丁巳(1797)에 芸閣字로 印行한 7卷 3册本이다. 그러므로 昭代風謠에서와 같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詩人의 작품은 찾아 보기 힘들다.

昭代風謠가 箕雅의 例에 따라 詩體別 編第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風謠續選은 古體·今體·五言 七言을 물론하고 各人의 姓氏 아래 列錄하여 考覽에 便하도록 하였다. 凡例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이 今體詩로 채워져 있는 이 책에서는 詩體別로 編次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卷首(卷之一) 所載 32家の 詩篇은 昭代風謠의 卷末에 附載한 拾遺·別集·別集補遺 등을 다시 1卷으로 合輯한 것으로서, 그 體段을 갖추고 未盡한 것을 補充하기 위하여 再錄한 것이다.

李德涵의 跋文에 따르면, 昭代風謠가 刊行된 뒤에도 많은 詩人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그 周甲이 된 지금에 있어서는 그들의 이름조차 逸失한 詩人이 殆半이나 되었으므로 松石園이 中心이 되어 다시 詩彙를 蒐集, 藝苑의 明鑑에 就正하여 奇險한 것은 버리고 平正한 것은 取하여 精選·集約하게 되었다 하고, 또 그 目的은 埋沒된 것에 대한 發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當世之士로 하여금 더욱 勉勵토록 하여 後日을 기다리는데 있다고 陳述하고 있다.

그러나 委巷詩人들이 그들의 詩集을 간행하려 하는 노력은 그것이 단순한 詩集의 간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身後에까지 傳하려는 강한 意志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君子는 「名著外物」이라 하여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불우한 처지에서 今世를 살아야만 하는 委巷詩人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所重하고 切實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意志는 委巷詩集의 先驅가 된 海東遺珠와 昭代風謠의 간행에 推進力이 되었으며 마침내 18세기 말에서부터 본격적인 流派的 活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詩社의 結成에 活力素가 되었다. 風謠續選의 간행에 求心體가 된 松石園詩社(一名 玉溪詩社)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원래 詩社의 結成은 士大夫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委巷詩人이 中心이 된 이 松石園詩社에 이르러 詩社의인 文學活動은 그 絶頂을 이루었으며, 兩班 士大夫들에게도 羨望의 的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松石園詩社의 분위기와 성격은 存齋集의 다음 글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¹⁸⁾

嗚呼 松石先生居玉溪上 以文史自娛 鄉隣同志之士 日相與往來旅長松老石之間 會必有詩 詩之成卷 此詩史之所以作也

이 詩社의 中心 人物은 대부분이 風謠三選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일부가 風謠續選의 후반에 실려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의 편자인 張混은 一生을 奎章閣胥吏·外閣校書의 吏員으로 있었지만, 四部書를 博覽하고 詩에 長하여 그의 簪校를 거쳐 발간된 編書만도 數10種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金邁淳·李書九·洪奭周 등 當代의 名門 大家들과도 사귀어 往復書로써 文學的인 交遊도 가졌다. 특히 그의 詩는 富瞻雅順하여 李書九는 「古體深得 漢魏餘響」이라고 하였으며¹⁹⁾, 洪奭周는 그에게 答하는 글에서²⁰⁾

足下之文 最長於詩 詩尤長于古體 四言隱約魏晉 五言灑削王韋(中略) 亦知足下之詩 非今世詩也

라 하여 그 根源이 깊고 먼 데서 온것임을 稱道하고 있다. 今體가 行世하던 당시의 騷壇에서 古調長篇에서 能力을 誇示한 그의 詩業은 士大夫의 그것에 비하여 不足함이 없다 할 것이다.

風謠三選은 續選의 續集이다. 稷下社의 詩同友人 劉在建·崔景欽 등이, 風謠續選 이후의 委巷詩人 305家의 詩를 選輯하여 哲宗 8年 丁巳(1857)에 印行한 七卷三册本이다. 昭代風謠가 간행된 60년 뒤에 風謠續

18) 朴允默, 存齋集 卷 23, 王溪詩史序

19) 具滋均, 近世의 文人 張混에 대하여, 國文學論叢 p.35에서 再引

20) 洪奭周, 淵泉集 書卷, 答 張張生混書

選이 간행되었고 다시 60년이 되는 해에 風謠三選이 나왔다. 昭代風謠의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120이 훨씬 넘는 長久한 세월을 거치면서도 委巷詩人들은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고 三選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로써 委巷詩人들의 詩篇이 대체로 收拾되었으며 사실상 이것이 獨自의인 委巷詩人의 詩集으로서는 마지막 간행이 되었다. 내용에 있어서도 續選을 편집한 千壽慶·張混을 비롯하여 金洛瑞·王大·朴允默 등 松石園의 중심 멤버들이 異彩를 띠고 있으며 趙秀三·鄭芝潤과 같은 一時의 名流들이 끼어 이 책의 내용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編第는 續選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失名氏 4人 釋子 13人 女子 4人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委巷詩集으로서는 異例의이다. 이 책의 발간 경위에 대해서는 里鄉見聞錄의 崔景欽傳記에²¹⁾ 詳述되어 있다.

又善於詩文 欲與同志共之 遂結社 余亦參焉 每於花朝月夕 會而吟詠 及癸丑春 做蘭亭禊事 會于稷下社 各賦詩文 欲與同志飲而樂之 樞明乃發風謠續編之義 余曰可 卽爲通諭于諸處 收輯諸作 就正于文章大家 至丁巳冬 編已完 名曰風謠三選 遂鳩財刊印三百冊 授序文于經山鄭相國(以下略)

이 傳記는 三選의 편자인 劉在建이 직접 쓴 것이므로, 風謠三選의 간행이 稷下社의 決議에 의하여 遂行된 사실을 詳細히 기록하고 있으며 稷下社의 成立경위와 분위기에 대해서도 함께 알게 해 준다.

稷下社의 中心 人物로는 崔景欽·劉在建·趙熙龍·李慶民 등을 들 수 있다. 그 活動은 松石園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중심 멤버들이 저작한 壺山外史(趙熙龍), 熙朝軼事(李慶民), 里鄉見聞錄(劉在建) 등은 委巷詩人의 傳記 資料로서 값진 것이 되고 있다.

三選 이후 다시 60년이 되는 1917년에 幾堂 韓晩容이 風謠四選의 편찬 문제를 崔南善에게 의뢰한 일이 있었으나, 甲午更張 이후 제도적으로 階級이 打破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否定的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중지

21) 劉在建, 里鄉見聞錄 卷 7, 崔景欽 傳

되었으며²²⁾, 張志淵·李琦·張鴻 등과도 편집을 기획한 바 있으나 역시 당시 실정이 이를 容納하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張志淵 등이 이 해에 편집한 大東詩選 후반에 三選 이후의 委巷詩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표면상으로는 甲午更張 이후의 계급 타파를 云謂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舊韓末의 격동과 日本의 韓國 強占 등을 거치는 동안 中人層의 社會的 進出이 현저해져서 사실상 階層 移動이 실현된 상태였으므로 구차하게 그 身分을 摘出하면서까지 委巷詩集의 續輯을 企圖하는 것은 時宜를 잃은 일이다.

VI. 大東詩選과 民族意識

大東詩選은 漢詩의 選拔冊子로서는 總決算書다. 標題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古朝鮮에서부터 舊韓國末에 이르기까지 역대 200餘家의 各體詩를 選輯하여 12卷으로 出版한 것이다. 구한말의 학자요 언론인이기도 한 張志淵이 편집하여 1918年 新文館에서 新活字로 刊行하였다. 그러나 張志淵의 年譜와 張鴻植의 跋文에 따르면, 이 책의 原編은 1917年에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卷首의 凡例에서는, 서둘러 이를 編輯 刊布하기 때문에 遺漏된 것에 대해서는 補遺의 간행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나 이 책에 이미 補遺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原編이 편집된 후 출판에 붙이는 사이에 增補의 작업이 있는 듯하다.

이 책은 凡例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東文選·青丘風雅·箕雅·東詩選·昭代風謠·風謠續三選·大東名詩選 등 역대의 詩選集을 토대로 하여 增選 續補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大東詩選이라 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 책은 編者 개인의 詩選集을 간행하는 단순한 選詩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傳統時代의 文化遺產을 정리하는 노력의 一環으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漢詩의 傳統이 사실상 前時代의 것이

22) 具滋均, 朝鮮平民文學史 p. 111.

되어버린 현실이기 때문에, 張志淵과 같이 詩業을 專主로 하지 않은 史家에 의하여 이 책이 編輯 出版된 것이다.

이 책의 體制는, 全唐詩의 例에 따라 古近體 五七言을 막론하고 各人의 姓名아래 작품을 列錄하여 考覽에 편하도록하고 있으며, 특히 새 시대의 平等 原則에 따라 箕雅에서와 같이 不姓氏 雜流 등을 卷末에 附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모두 時代順으로 原編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이 詩選에서는, 우리나라 詩 가운데서 中國의 格律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詩가 있고 中國에는 中國의 詩가 있다 하여 笠篋引이나 黃鳥歌와 같은 古代 歌謠를 卷首에 選入함으로써 이 책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따라 帝王의 詩는 收錄하지 않는다는 傳來의 原則을 깨뜨리고 璃璃王과 善德女王을 特例로 認定 收錄하였으며 時代의 分段에 있어서도 작품의 제작 연대를 고려하여 古朝鮮·高句麗·新羅·高麗·朝鮮의 順으로 次第를 다룬하고 있다. 全唐詩 등 中國文獻에 收載된 우리나라 上代의 詩篇들도 앞머리에 採錄하여 初期의 漢詩 資料를 그만큼 보태주고 있다. 王巨仁·薛璠·金地藏·定法師 등의 작품을 보여 준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企圖는 箕雅 以前의 傳統的인 詩選集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으로서, 이는 곧 편자의 該博한 歷史知識과 투철한 民族意識 그것의 시킴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1917年은 風謠三選이 간행된지 60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때 幾堂 韓晩容 등이 風謠四選의 刊行을 의론하 왔으나 編者는 이에 應하지 않고 三選 이후의 委巷詩人을 이 大東詩選의 後半에 選入 處理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도 그의 自覺的인 時代 精神에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이름도 처음에는 大東風雅라 하였다가 「風雅」二字가 거리가져 詩選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바 이 또한 그 정신에 있어서 는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 大東詩選은 또 作者 未詳의 筆寫本 同名異書가 있는데 그 編輯 體

制는 대체로 箕雅와 같고 편찬 연대는 朝鮮 英朝代 이후인 것 같다. 다만 卷首에 箕子の 麥秀歌와 黃鳥歌를 收錄하고 있는 것이 異例의이라 할 수 있으나, 箕子の 麥秀歌를 싣고 있는 의도는 張志淵의 意識과 다른 次元에 있는 것이다.

VII. 結 語

漢詩의 전통이 이미 前時代의 것이되어 버린 오늘의 현실에서, 4만여 종을 헤아리는 詩文集을 망라하여 漢詩의 研究資料를 직접 求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그것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그 成就를 닳아서 기다릴 만큼 安逸을 누릴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漢詩를 生産한 당시의 詩人 批評家들이 직접 選拔에 참여하여 이룩한 역대 重要 詩選集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이 지니는 文學史的인 의미를 檢證해 보았다. 朝鮮 初期의 靑丘風雅를 비롯하여 朝鮮 中期의 國朝詩刪, 朝鮮後期の 箕雅 및 委巷詩人の 詩集인 昭代風謠・風謠續選・三選 그리고 우리나라 漢詩를 사실상 總決算한 大東詩選을 통하여 이것들이 가지는 時代史的인 의미와, 우리 문학사의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이다.

靑丘風雅에서는 宋詩學이 克服되고 있어, 豪放・新警한 것은 뽑아주지 않았으며, 格調높은 盛唐을 準尺으로 한 惺叟詩話는 모처럼 漢詩의 音樂性에까지 관심을 보여 本格派 批評家로서의 權能을 誇示하였다. 箕雅는 各時代의 所尙을 사실대로 認定했기 때문에 無難한 資料集으로서 摺紳間에 널리 읽혀진 選拔册子가 되었다. 昭代風謠・風謠續三選은 작품으로서의 수준은 별 것이 아니지만, 朝鮮後期 委巷詩人の 意志를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료적인 가치는 값진 것이다. 大東詩選은 우리나라 漢詩選集의 決算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 책에서 읽고 넘어가야 할 것은 투철한 歷史意識과 民族意識이다.